



# 일-중간 컨테이너 수출입물동량 12.8% 증가 올 상반기 일본발 중국향 물량 14.5% 늘어 일본과 중국선사 적취비율은 14% 대 86%

일본과 중국간의 무역규모 확대에 힘입어 양국간 수출입컨테이너 물동량의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외신에 따르면, 올 상반기중 일본과 중국간 수출입컨테이너 물동량은 총 136만211TEU로 전년동기에 비해 12.8% 증가했다.

이 기간중 양국간 수출입화물을 취급한 중국 주요 항만의 물동량 증감현황을 보면, 상해항이 64만 5,014TEU로 전년동기대비 21.6%가 증가했으며, 청도는 16만4,421TEU로 17.7%, 대련은 15만 1,332TEU로 1.1%, 천진은 14만4,937TEU로 10.3%

등이 각각 증가했으나, 기타 항만의 경우는 25만4,517TEU로 0.1% 감소했다.

또한 6월중 양국간 수출입화물은 24만2,923TEU로 전년동월에 비해 12.8% 증가하는 등 계속해서 두자리수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양국간 수출입화물 적취비

[2005년 상반기 일-중간 수출입컨테이너]

(단위 : TEU)

구분	일 → 중		중 → 일		합계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물량	증감률
상해	210,512	26.5	434,502	19.3	645,014	21.6
천진	61,654	4.9	83,283	14.7	144,937	10.3
청도	31,149	6.5	133,272	20.6	164,421	17.7
대련	40,011	▲20.3	111,311	11.9	151,322	1.1
기타	63,760	▲8.2	190,757	3.0	254,517	▲0.1
합계	407,086	8.8	953,125	14.5	1,360,211	12.8

※ 주 : 우측은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일본의 대중국 수입화물은 95만3,125TEU로 전년동기에 비해 14.5%가 증가했으며, 수출화물은 40만 7,086TEU로 8.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은 일본의 수출물량 확대로 일본적 선박이 14%를 기록했으며, 중국적선박은 86%를 실었다.

## 일본선주협회, 내년도 세계개정 요망사항 발표 스즈키 쿠니오 회장, 톤수표준 세계 조기도입

일본선주협회의 스즈키 쿠니오(Suzuki Kunio) 회장(MOL 회장)은 7월27일의 회견에서 2006년도 세계개정 요망의 내용을 발표했다. 스즈키 쿠니오 회장은 내년에는 일본상선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톤수표준 세계에 대한 조기도입과 함께 특정자산의 압축자산 연장, 국제선박과 관련되는 등록면허세의 경감조치 연장, 외항용 컨테이너와 관련되는 고정자산세의 경감조치 연장 등 현행제도의 유지 및 연장이 필요한 만큼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세계개정 : 톤수표준 세계도입의 이념은 별도 검토하고 있어 그것이 결정되는 대로 국토교통성과 협의하고 싶다. 내년도 요망을 보류하면 조직으로서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굳이 선언하는 문제도 아니다. 한번 더 정리해, 신중하게 대응해 나가고 싶다. △선원 배송요건 철폐 : 해상기술자의 확보·육성책은 조합과의 사이에 내년6월을 목표로 완성시킨다는 목표를 설정했으므로,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면 피해 조사 : 국토교통성의 요청으로 회원기업에 대해 Asbestos(석면) 피해 상황 등의 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빠른 단계에서 공표하여 그 결과를 근거로 신속하게 협회로서 대응해 나가고 싶다.